

광주시 ‘폭염과의 전쟁’…취약계층 구석구석 살핀다

쪽방촌 찾아 폭염 대응체계 점검…응급침대·냉방물품 비치 확인
관계기관과 독거노인·건설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 보호조치 시행

광주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광주시가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 해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울 들어 예년보다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촌 주민, 배달노동자, 건설노동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함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쪽방주민 밀집 지역을 찾아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폭염대응 노숙인 종합보호대책’과 ‘쪽방 거주민 등 민감대상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쪽방이 밀집한 계림동을 찾아 쪽방촌에 마련된 응급침대와 냉방물품 비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냉방용품, 응급침대 등의 광주시 지원 상태를 점검한 것이다.

광주시는 쪽빛상담소,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노숙인일시보호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긴급 잠자리, 냉방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 보호 인력을 투입,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지원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폭염대책 기간을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난달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으로 쪽방주민 40명에게 폭염 대응 키트를 제공했다.

7-8월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지정해, 폭염 민감대상자 15개 유형을 신체·사회·직업·경제 분야로 나눠 맞춤형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000여명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독거 어르신 8000여 가구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이다.

건강관리 전문인력의 방문 진료와 함께 부채·쿨마스크 등 건강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동안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시설 거주민에게는 재난구호기금 6600만원을 투입해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1일 동구 계림동 쪽방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쪽빛상담소를 찾아 무더위쉼터 운영을 살피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직업적으로 폭염에 노출된 농업인, 건설근로자, 이동노동자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건설현장에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이 권고되며, 냉방시설과 냉수·쿨링용품이 구비된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쉼터 쿠폰 지급사

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경제진흥원자리재단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며,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쉼터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 150명, 대리운전기사 500명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안전교육과 노동환경 설문조사를 이수한 후 제공되며,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 등의 실내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실내 또는 그늘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는 ‘자원재생활동단’을 8월 한 달간 운영해 폭염 기간 저장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681개 그늘막, 24개 쿨링포그, 2개 클린로드를 상시 가동하고, 1500여 곳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의 기존 대책에 더해 살수차 운행, 생수 나눔 캠페인 등 폭염 대응 조치를 확대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편성에 즉시 자치구에 교부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노숙인 시설, 소방·경찰·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간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의료·식량 지원, 화재 예방 교육, 위생점검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 부시장은 “폭염 특보 시에는 어르신과 노숙인 등 폭염 민감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약수터·냉방기 환경 집중 검사

“여름철 미생물 번식 쉽고 수질 급변…음용 대신 손씻기 용도로만”
9월 세계양궁 대비 다중이용시설 호흡기질환 레지오넬라균 검사

광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산행이나 야외활동 시 약수터 등 먹는물 주의를 당부하고,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균을 집중 검사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에는 월 2회 검사하는 등 연 12회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청풍샘터·산장광장·중심사 입구 등 3개소), 남구 대각사 약수터, 광산구 용진 약수터, 산정 약수터 등 총 6곳의 약수터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4회 검사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름철에는 월 2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라도 하절기에는 총대장균 등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고 비로 인해 수질이 급변할 수 있어 마시는 건 자제하고 손을 씻거나 가볍게 맘을 씻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먹는물 공동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시설당 총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 3곳(청풍샘터는 6회, 산장광장은 2회, 중심사입구는 1회)은 총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균을 집중 검사를 이달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9월 광주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집중 검사 대상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16곳을 포함해 종합병원·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 백화점·대형 건물·목욕탕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총 183곳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레지오넬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643건 중 58건(9.0%)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고 주요 발생 시설은 냉각탑(20.8%), 온수공급시설(11.9%) 등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1일 작업자들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람석 교체작업을 하고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챔필 관람석 교체 속도…휴식기 60% 목표

광주시가 프로야구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관람석 교체에 속도를 올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휴경기가 없는 오는 16일까지 휴식기 동안 공정률을 60%(9907석)로 목표로 하고있다.

광주시는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해 변색과 파손 등 노후화된 관람석 1만6294석을 전면 교체 작업을 하고있다.

안정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판과 등판, 컵홀더 크기를 키우고, 디자인과 색상은 기존과 같지만 새 것으로 산뜻하게 교체하는 것이다.

기상 등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다면 8월 말까지 관람석 교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관람석 전면 교체로 더욱 새로워진 챔피언스필드의 기운을 이어받아 KIA 타이거즈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보며 환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관람석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정비현장을 점검하고 야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이드 인 광주’ 극장판 애니 VIP 시사회

‘다이노맨…’ 25일 정식 개봉

광주에서 만들어진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이 처음으로 선보여졌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광주상무점에서 공작자 가족 등과 애니메이션 영화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 VIP 시사회가 열

렸다.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간여행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다.

TV 시리즈 ‘다이노맨’의 세계관을 확장한 약 6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무등산에서 태어난 꼬마공룡 히어로 ‘다이노맨 구조대’가 우주약당에 맞

서 멸종위기동물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정식 개봉은 25일이며 전국 메가박스에서 관람 가능하다.

한편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유치 공모전’에서 스케일업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사업화 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